

## 아더 베커(Arthur L. Becker)의 교육선교활동과 ‘연합기독교대학’ 설립

안 종 철\*

1. 머리말
2. 아더 베커의 생애와 초기 평양에서의 활동
3. ‘연합기독교대학’ 설립 논란
4. 감리교 측의 논리와 베커의 서울에서의 활동
5. 맺음말

### 1. 머리말

식민지 시기 초기 조선에서는 일제가 제공한, 제한된 범위의 공교육과 함께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립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둘 사이에는 교육을 통한 ‘근대성’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조선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구, 특히 미국 선교사들은 의료와 교육부분에서 많은 투자를 하면서 선교활동을 진행했다. 이들이 유일한 비서구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선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식민권력과 함께 조선인들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 측으로서도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만 하지 않으면 선교사들의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식민체제의 정당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식민지의 조선인들은 교육기회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성장과 함께 민족주의적 열망을 실현하고자 했다. 당시 대부분의 조선인들에게는 초등·중등교육이 더 절실한 문제였지만 고등교육도 한 사회의 교육기관의 정점을 이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일제가 조선인들과 선교사들의

---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으로 ‘제국대학령’을 반포하면서 경성제국대학교를 설립한 것이 겨우 1920년대 중반이었으므로 조선에서 1910년대 대학교 설립문제가 어떤 사상과 배경에서 추진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선교사들의 연합기독교대학 설립문제는 최재건이 지적한 대로 1915년 일제가 제정한 ‘개정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학내 정규수업과정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할 지 여부 논쟁, 1922년 신교육령(제2차 교육령)으로 인한 ‘지정학교화’를 둘러싼 문제, 그리고 1930년대 신사참배 강요로 인한 기독교 교육과 식민권력간의 갈등 등과 함께 식민지시기 기독교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였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기존 연구도 주로 북장로교 조선선교부와 뉴욕의 해외선교부간의 갈등 혹은 평양과 서울의 선교지부 간의 갈등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그래서 이의 성격과 형태에 대해서는 대략 알려져 왔다.<sup>2)</sup> 또 북장로교 조선선교부 내부의 소수파로서 남북감리교와 연합하여 조선기독교대학(연희전문학교)을 창립한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한국명 元杜尤)의 학교설립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비교적 밝혀져 있다.<sup>3)</sup> 평양에서 연합대학을 먼저 시작했

- 1) 최재건, “1920년대 개신교 선교사들의 교육정책 전환-신교육령으로 인한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내부갈등을 중심으로,” 『역사신학논총』 제15집(2009), 84.
- 2) Harry A. Rhodes,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Vol. I. 1884-1934*(Presbyterian Church, U. S. A., 1934), 477-491은 당시 선교부 회의록을 활용해서 가장 자세히 이 주제를 살폈다; James E. Adams, *Presentation of Difficulties Which Have Arisen in the Chose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U.S.A., 1920)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조선선교부와 뉴욕의 해외선교부 간에 오고간 문서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조선선교부 다수파의 시각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Horace H. Underwood, *Modern Education in Korea*(New York: International Press, 1926), 131-134; 이용민, “미국 북장로회 서울 선교지부와 평양 선교지부의 관계,”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2호(2010), 216-219; 박용규, “칼리지문제와 서울-평양 미선회의 갈등,” 『역사신학논총』 제5집(2003) 등 참고.
- 3) 서정민, “언더우드: 한국 기독교 고등교육의 꿈,”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편찬위원회, 『(창립 120주년 기념)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최재건, “Underwood 대학설립의 차별성-延禧 창립을 중심으로,” 『역사신학논총』 제12집(2006).

던 숭실대학교 측의 출판물도 비록 학교 측과 북장로교 조선선교부 다수와 선교사들의 시각을 담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비교적 잘 정리하고 있다.<sup>4)</sup>

이 글에서 필자는 기존에 잘 주목하지 못했던 세 가지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는 북감리교파의 교육선교사업을 사실상 이끌었던 아더 베커(Arthur L. Becker, 1879-1979; 白雅德)의 활동과 생각을 다루고자 한다. 베커는 평양 연합기독교대학(숭실대학)의 초창기에 윌리엄 베어드(William M. Baird, 1862-1931; 裴偉良), 조지 맥쿤(George S. McCune, 1873-1941; 尹山濶) 등과 함께 학교운영 및 교수활동에 참여했다. 그는 북감리교 조선선교부의 교육위원회(Educational Committee)를 주도하면서 조선 내 감리교 측의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그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정보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최근 새로 발간된 그의 전기와 북감리교 해외선교부의 문서를 활용해서 그의 활동을 정리하려고 한다.<sup>5)</sup>

둘째는 감리교 측, 특히 북감리교파(Methodist Episcopal Church)의 교육사업에 대한 입장을 다루고자 한다. 감리교는 구한말 선교 초기부터 교육 사업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교육기관운영에서 감리교 측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서울에서의 고등교육기관 설립은 장로교파 측의 언더우드가 주도하고 이에 감리교 측이 동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 초기 연희전문에서의 북감리교파의 활동을 알 수 있다.

셋째는 위의 북감리교파의 교육정책과 일제, 특히 조선총독부 정책과의 관계를 다루고자 한다.<sup>6)</sup> 일제의 ‘한국병합’ 후부터 3·1운동 때까지

4) 숭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숭실편』(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7), 175-192; 숭실대학교 측의 입장은 사실상 숭실학당을 설립한 윌리엄 베어드의 것과 동일하다.[Richard H. Baird], *William M. Baird: A Profile*(Oakland, 1968)(미출간 원고), 149-184 참고.

5) 숭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교사(校史)는 각각 베커가 “한국 과학 교육의 기초를 확립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고 “과학분야의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고 근대과학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 『숭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숭실편』, 88;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90.

6) 이성전은 이 점을 잘 지적했다. 李省展, 『아메리카인宣教師와朝鮮의近代』

선교사들은 식민권력과 긴장관계에 있었다. 당시 선교사들은 일제의 식민지교육정책이 조선인들의 교육기회를 극도로 제한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별도로 교육기관의 일원적 설계, 즉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설립에 대해 상당히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베커의 내한기간 중 전반부에 해당하는 1903- 1926년 기간의 그의 활동과 북감리교 교육 사업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 2. 아더 베커의 생애와 초기 평양에서의 활동

아더 베커는 1879년 미시간(Michigan)주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입국한 1903년까지 줄곧 그곳에서 초등-중등-고등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는 당시 조선에 내한한 대부분의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중서부의 중산층적 배경에서 자랐다. 대학교는 일하면서 공부하는(work-study) 생활로 졸업했다. 그가 대학을 다녔던 19세기 말·20세기 초 미국 중서부에는 각 기독교(protestantism) 교파가 신학교 예비과정의 성격을 갖는 학교로 개설한, 작은 규모의 대학교가 많이 설립되어 있었다.<sup>7)</sup> 베커가 다녔던 엘비온 대학(Albion College)도 감리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기독교대학교였다.<sup>8)</sup> 베커는 이 대학의 기독교적 분위기에서 생활하면서 수학을 중심으로 한 자연과학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그는 당시 대통령에 취임한 테오도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의 “자비로운 팽창(benevolent expansion)”이라는 생각을 지지하고 있었다.<sup>9)</sup> 즉 기독교와 문명의 발전, 팽창 등을 동일시하고 있었으므로 “구원자로서의 미국”의 이미지와 해외선교를 결합하고 있었다.<sup>10)</sup> 그도 1910년 이전

ミッシヨンスクールの生成と植民地下の葛藤』(東京: 社會評論社, 2006), 143-144.

7) George M. Marsden, *The Soul of the American University*(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79-84.

8) Evelyn B. McCune and Heather M. Thompson, *Michigan to Korea: Arthur L. Becker 1899-1926*(U. S. [City Unknown]: Lulu, 2009), 35.

9) *Ibid.*, 18.

10) 학생자원활동과 내한선교사들의 관계, 그리고 선교사들의 ‘미국인 됨’의

한국에 온 대다수의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해외선교를 위한 학생자원 운동(Student Voluntary Movement; SVM)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무어(David H. Moore) 감독과 북감리교 해외선교부 총무 올드햄(Joseph H. Oldham)이 1903년 1월, 앨비온 대학의 학생자원회(Student Voluntary Society)를 방문해서 해외선교, 특히 한국선교의 필요성에 대해 연설을 했을 때 베커는 큰 감명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한국에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했고 북감리교 해외선교부는 베커와 함께 그의 대학동창, 칼 크리체트(Carl Critchett)를 조선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sup>11)</sup>

1903년 4월 9일에 조선에 도착한 이들 감리교 선교사들은 베커, 크리체트를 비롯, 존 무어(John Z. Moore II)<sup>12)</sup>, 칼 루푸스(Carl W. Rufus)<sup>13)</sup>, 로버트 샤프(Robert A. Sharp)<sup>14)</sup> 등인데 이들 모두는 교육선교사업에 참여했다.<sup>15)</sup> 이것은 초기 북감리교의 초기선교부터 확립된 선교정책, 즉 학교, 병원,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사회전체의 변화를 꾀하는 ‘기독교적 문명

---

의미는 류대영, 『초기 미국선교사 연구 1884-1910-선교사들의 중산층적 성격을 중심으로』(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137-154 참조.

- 11) McCune and Thompson, *Michigan to Korea*, 36-38.
- 12) 무어(1874-1963)는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광성학당(이후 광성고등보통학교)의 제2대 설립자로, 정의여학교의 운영 등에도 관여했다. 김승태·박혜진 엮음, 『내한 선교사 총람 1884-1984』(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387. 이하 선교사들의 정보는 이 책과 『기독교대백과사전』 등을 참고했으므로 출전을 밝히지 않는다.
- 13) 칼 루푸스는 평양숭실대학교 배재학당에서 가르쳤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서 학위를 한 이후 미시간대학교의 물리학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베커와 앨비온 대학 재학 시부터 절친한 친구로 한국인들 중 앨비온 대학과 미시간대학교로 유학한 사람들의 지원자역할을 했다. 한국천문학의 창설자로 불리는 이원철은 루푸스의 천문학 강의를 듣고 천문학을 선택하고 앨비온 대학과 미시간대학교 대학원에서 그의 아래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원철에 대해서는 나일성, “한국 천문학의 새벽별·이원철(1896-1963),” 연세대학교 출판위원회 편, 『진리와 자유의 기수들-연세의 초석 15인』(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2), 154-70.
- 14) 샤프(1872-1906)는 배재학당에서 교육사업에 참여했고 1903년 10월 28일 발족한 황성기독교청년회 초대이사로 선출되었다. 또 1905년 공주지역에서 교육과 순회전도 사업에 종사했다. 1906년 순회전도 중 발진티푸스로 사망했다.
- 15) 이들의 입국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McCune and Thompson, *Michigan to Korea*, 105-107.

론'의 전통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는 직접전도를 통한 선교를 강조하는 장로교 측과 대비되었다.<sup>16)</sup> 베커가 조선에 올 무렵인 1903년 미 북감리교와 남감리교 선교부는 배재학당의 운영에서 연합하기로 했다.<sup>17)</sup> 이들의 조선 파견은 서울과 평양의 기독교계 중등·고등 교육시설의 확충에 촉매제가 되었다. 감리교 측의 이러한 정책은 당시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북장로교 측의, 기독교인 자체 중심으로 신학교육을 전제한 중등 교육에 비해서 보다 폭넓은 교육을 강조했다.<sup>18)</sup> 그러나 당시 1902년 조선에서는 대기근이 발생하고 대한제국 정부가 배재학당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는 등 교육여건은 그리 좋지 않았다. 하지만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이듬해에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면서 조선인들의 교육사업에 대한 열정이 분출되었다. 그 결과 각지에서는 조선인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학교설립운동이 일어났다. 선교사들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다.

베커가 가졌던 '신학사상'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성경과 과학"이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것을 믿는 것이었다. 그는 성경과 과학의 통합을 믿었고, 이는 성경과 자연계시를 동시에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조선인들은 "영적이고 과학적인 진리"를 필요로 한다고 베커가 말했을 때는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sup>19)</sup> 그의 교육배경과 함께 그가 조선에 과학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 입국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입장은 어찌면 당연한 것이었다. 아울러 이 점은 과학적 탐구와 기독교가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고 당시 수많은 기독교 사상가들이 믿고 있었

- 
- 16) 초기 장로교와 북감리교의 선교정책에 대한 차이는 옥성득, "한국 장로교의 초기 선교정책(1884-1903)-19세기 "토착교회론"의 한국 수용 배경과 발전에 대한 재검토,"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9호(1998년 9월); 동 저자, "초기 한국 북감리교의 선교 신학과 정책-올링거의 복음주의적 기독교 문명론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1호(1999년 9월)를 참조할 것.
- 17) "Korea, 190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Korea Mission 1884-1943*(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370(이하는 Methodist Annual Report로; 쪽수는 연차보고서 상의 쪽수).
- 18) 베어드와 모팻 등 평양지역 선교사들이 주도한 북장로교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李省展, 『アメリカ人宣教師と朝鮮の近代』, 58-69참조.
- 19) McCune and Thompson, *Michigan to Korea*, 143.

음과 관계가 된다.<sup>20)</sup> 베커는 전문적인 신학훈련을 받은 선교사들과 교육자로서의 자신의 입장 차이를 자주 확인하곤 했다.<sup>21)</sup> 그리고 이러한 그의 입장은 H. G.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가 교육선교의 가치를 강조했던 것과 통한다.<sup>22)</sup> 그리고 이것은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일한 그의 아들 H. H.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 원한경)의 입장,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임스 피셔(James E. Fisher) 등이 주장한 교육 자체의 목적성을 강조한 입장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었다.<sup>23)</sup>

평양은 인구 5천명 이상의 도시로 교파 구별없이 선교를 할 수 있었지만 장로교 측의 교세가 월등히 앞섰다.<sup>24)</sup> 이 도시에서 감리교 선교사들은 장로교 선교사들과 구획을 달리하는 곳에 거처를 정했다.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서문과 서문외곽의 칠성문(七星門) 사이의 서양인촌에 자리를 잡았던 것에 비해 감리교 선교사들은 서문안쪽에 자리를 잡았다.<sup>25)</sup> 물론 장로교와 감리교 측은 일요일 오후에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주중에 선교사 집에서 모이는 등, 나름의 협력을 했다. 그러나 두 교파는 생활권이 달랐고 선교정책도 달랐으므로 두 교파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있었다. 특히 인력과 활동 면에서는 장로교 측이 감리교에 비해 세 배 정도였다.

베커는 입국 후 두 해 동안 한글을 배우면서 평양외곽의 교회를 순회·방문하는 활동을 했다.<sup>26)</sup> 그리고 입국한 지 두 해가 지났을 때부터

20) George M. Marsden, *The Soul of the American University*, 115-121.

21) McCune and Thompson, *Michigan to Korea*, 192-193.

22) 베커는 1903년 조선에 입국한 직후 서울에서 가진 선교사들의 예배 직후 “언더우드가 중요한 인물이고 교육에 대한 그의 생각을 가능한 한 속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깨달았다.” Ibid., 128.

23) 그러나 필자는 원한경이 여전히 원두우의 “개신교 국교주의(Protestant Establishment)”의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피셔의 경우와는 구분된다고 생각한다. 피셔가 보기에 원한경은 “성경과 교회에 대한 정통 장로교 신학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James E. Fisher, *Pioneers of Modern Korea*(Seoul: Sam Sung Printing Co., 1977), 265.

24) 1892년부터 1909년까지 교파별 지역안배를 한 ‘교계예양’에 대해서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서울: 기독교문사, 1989), 213-218 참조.

25) McCune and Thompson, *Michigan to Korea*, 140-141.

26) “Korea: 1905,” *Methodist Annual Report*, 311.

본격적으로 교육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했는데 평양 숭실학당에서 중등, 고등교육 과목들을 가르쳤다. 1904년 일본의 도발로 시작된 러일전쟁은 전쟁의 격전지였던 서북지역의 교육열을 지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평양의 유지들은 1905년 6월 베커와 감리교 목사 이은성(李殷聖)에게 조선인을 위한 감리교 학교를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sup>27)</sup> 그러나 재정 상황 때문에 감리교 독자의 학교설립은 보류되었다. 베커는 이 해에 감리교 선교부 연례회의에서 배재학당의 벙커(Dalzel L. Bunker), 이화학당의 프라이(Lulu E. Frye)와 함께 3인으로 구성된 감리교 조선선교부 ‘교육위원회’의 일원이 되었다. 아울러 그는 평양에 중등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권한을 연례회의로부터 부여받았다.<sup>28)</sup> 이 중등교육기관은 장로교 측과 연합해서 운영되었다.

20세기 초 전 세계적으로 피선교지에서 연합사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연합사업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었다. 그 결과 1905년에 장로교 4개 선교부, 감리교의 2개의 선교부가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그것이 한국복음주의선교회연합공의회(The Gen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이다.<sup>29)</sup> 이 공의회 주관으로 다양한 연합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이해에 숭실학당에서 장·감연합사업으로 고등교육이 시작되었고 이듬해인 1906년 7월에 대한제국 학부로부터 대학교설립을 인가받았다.<sup>30)</sup> 베커의 숭실에서의 활동은 이러한 연합운동의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베커는 1910년 숭실대학의 봄학기를 마치고 안식년을 맞아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리는 세계선교사대회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주목할 사항은 선교의 중요한 수단으로 교육부분이 강조되었고 그 결과 선교지에서 교육사업에서의 연합운동이 계속 촉구되었다는 것이다.<sup>31)</sup> 그는 이

27) McCune and Thompson, *Michigan to Korea*, 188-189. 이은성은 후일 한국병합 직전 총리대신 이완용 암살미수사건에 관련되었다.

28) McCune and Thompson, *Michigan to Korea*, 191; 『숭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숭실편』, 139.

29) 원래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지만 여건상 연합사업을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208-213.

30) “Korea: 1905,” *Methodist Annual Report*, 312.

31) 李省展, 『アメリカ人宣教師と朝鮮の近代』, 127; McCune and Thompson, *Michigan to Korea*, 365.



회의의 취지에 깊이 공감했다. 한편 그는 이 회의 참석 후 미국에 입국해 자신의 모교 앨비온대학에서 화학과 석사과정을 밟으면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졌다. 동시에 이 기간에 그는 평양의 연합기독교대학의 기금을 모집하기 위해 소책자를 제작하기도 했다.<sup>32)</sup> 그가 미국에 있는 동안은 1905년 평양의 ‘연합기독교대학’ 즉 숭실대학의 자연과학 수업은 사실상 중단상태가 되었다. 이는 초기학교들의 운영이 시스템보다는 소수 선교사들의 실질적인 능력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 3. ‘연합기독교대학’ 설립 논란

베커가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조선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일제가 1910년 8월 29일에 ‘한국병합’을 단행하면서 조선총독부는 조선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조선에서 활동하는 각 교파 선교부는 정치적 여건과 더불어 재정적 상황을 고려할 때 연합교육기관설립을 통해 교육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일제가 병합 전후부터 재편한 교육제도의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일제의 대한제국 교육문제에 대한 간섭은 통감부가 설치된 1906년 2월경부터 시작되었지만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는 1908년의 사립학교령(칙령 제62호, 1908. 8. 26)을 통해 확립되었다. 그 핵심은 학교설립을 위한 ‘등록’과 교과서, 교사에 대한 통제에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제의 ‘한국병합’ 후에 가속화되었는데 특히 조선총독부는 선교사들의 교육정책과 한국인들의 숫구치는 교육열을 조정하기 위해서 1911년 8월 23일에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했다. 이 교육령은 한반도의 모든 학교의 시설과 교사진을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일본인들과 교육상 다른 체제하에 놓이게 되었다.<sup>33)</sup>

32) “The Pyeng Yang Union Christian College,” *Korea Mission Field*(이하 KMF), Vol. 7. No. 5, May 1911, 138.

33) 정재철, 『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서울: 일지사, 1985), 290-300의 교육령 전문과 평가를 참조.

총독부의 교육체제 개편에 부응해서 선교사들은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특히 각 선교단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세웠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체제를 총독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재조정하는 일이 필요했다. 대학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것은 서울지역의 미북장로교 선교사들인 H. G. 언더우드와 쿤스(Edwin W. Koons) 등이 주도해서 서울에 대학설립이 필요하다고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를 강력히 설득하는 것이었다.<sup>34)</sup> 물론 ‘한국병합’ 이전에도 배재학교와 경신학교 등은 ‘대학분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학으로의 발전은 제도적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였다. 특히 일제는 ‘한국병합’ 이후 고등교육기관을 조선에 둘 필요가 없고 고등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일본에 유학하면 된다고 공공연히 주장했는데 이는 한국인들의 교육열을 잘 알고 있는 선교사들의 대학설립운동에 자극제가 되었다.<sup>35)</sup>

우선 일본에서 교육선교사로 활동하던 마르퀴스(Dr. Marquis)가 1911년 3월에 조선을 방문해서 연합교육사업을 위한 필요를 역설했다.<sup>36)</sup> 이 모임에 참석한 7개의 각 선교부들(남북장로교, 캐나다장로교, 호주장로교, 남부감리교, 스코틀랜드장로교)은 교육사업을 위한 공의회(Federation)를 두고 이회의를 실질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이사회(Senate)를 두기로 했다.<sup>37)</sup> 그

34) H. G. 언더우드는 한국병합 직전에 해외선교부 총무 아더 브라운(Arthur J. Brown)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들은 “여러 해 동안 서울에서 대학사업을 하려고 추진해” 왔다고 했다. H. G. Underwood to Arthur J. Brown (1910년 7월 18일),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V』(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9), 38. 언더우드 등 서울지역 미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한국병합’ 이전부터 진행된 대학설립운동은 다른 지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1911년 이후만 다룰 것이다.

35) H. G. 언더우드 등이 대학설립운동을 서두르려고 했던 이유는 일제의 조선인 ‘우민화’ 정책에 대한 대응의 의미에 더해 장로교 측, 특히 평양지역 선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좁은 견해’에 대한 비판의 의미가 있었다. 전자에 대해서는 H. G. Underwood to A. W. Halsey(1911년 6월 6일), 『언더우드 자료집 IV』, 44; 후자에 대한 언더우드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것은 H. G. Underwood to A. W. Halsey(1913년 4월 8일) 『언더우드 자료집 IV』, 88.

36) 마르퀴스는 연합사업의 다섯가지 유익을 들었다. 즉 효율성 확보, 낭비와 중복사업의 제거, 연합체를 과시, 정부기관과 수업과정과 교육사업을 조화, 그리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 등이다. Horace G. Underwood, “A Significant Meeting,” *KMF*, Vol. 7. No. 5. May, 1911, 135-136.

37) 이 모임의 의장은 사무엘 모팻이었고 총무는 빌링스였다. *Ibid.*

결과 “교육사업을 위한 선교사공의회(Federation of Missions for Education)”가 1911년 4월 8-10일 평양에서 결성되었다. 의장에 언더우드, 총무(Secretary)에는 감리교의 빌링스(B. W. Billings)가 선출되었다. 이 공의회의 이사회가 가진 권한은 교육과정의 일원화를 추구하고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다음 조항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현재 (공의회를) 구성하는 선교부에 의해 설립되거나 유지될 중등학교(High Schools), 문리과 대학(Arts Colleges), 기술학교들과 특수학교들의 장소, 숫자와 이들 학교간의 상관성(correlation)과 관할 지역의 구획 등이 이 사회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sup>38)</sup>

공의회 이사회는 대학을 정점으로 중등, 초등교육을 재편하는 것을 토론하기 위해 모였다. 여기에서 더 많은 교과가 참여하는 연합대학문제가 논의가 되었다. 그러나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는 이전에는 한국 내 한 개의 대학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장소문제에서도 조선선교부 측의 결정을 따른다고 결정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평양 숭실대학이라는 현상유지정책을 지지하고 있었다.<sup>39)</sup>

마르퀴스 박사의 방문후인 1911년 상반기에 북감리회 측이 언더우드에게 연합대학설립문제를 문의해오고 있었다는 것은 북감리회 측의 조선선교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40)</sup> 평양에서도 북감리교 선교사들이 서울에 연합대학이 세워지는 안을 지지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래서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던 캐나다 장로교의 그리어슨(Robert G. Grierson; 具禮善)은 평양의 연합교육운영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sup>41)</sup> 북감리교 선교부측은 자신들을 향해진 비판의 날을 피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연합기독교대학설립

38) Horace G. Underwood, “The Educational Foundation,” *KMF*, Vol. 7. No. 6. June 1911, 167-170에 전문이 수록.

39) Arthur J. Brown to H. G. Underwood (1911년 8월 7일), 『언더우드 자료집 IV』, 55.

40) 해리스 감독과 노블 등이 적극적으로 언더우드에게 만남을 요청해왔다. H. G. Underwood to Arthur J. Brown(1911년 7월 18일), 『언더우드 자료집 IV』, 51-52.

41) Robert G. Grierson, “Correspondence,” *KMF*, Vol. 8. No. 7. July 1912, 203-205.

과 관련된 선교부의 결정사항을 공개했다.<sup>42)</sup> 여기서 아직 자신들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면에서는 서울에서 연합대학 설립에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언더우드의 경우, 그의 형 존 언더우드(John T. Underwood) 등을 중심으로 한 모금활동이 성공해서 52,000달러의 기금을 확보했다는 점과 북감리교 측도 150,000달러의 대학설립을 위한 기금을 이미 확보해두고 있었다.<sup>43)</sup> 1913년 말 후일 서울연합대학의 관리이사회(the Board of Control of the Seoul Union College)에 속하게 될 노블, 벙커, 언더우드, 하디, 에비슨, 쿤스 등 남북감리교, 장로교 측의 선교사들은 연명으로 뉴욕의 한국교육을 위한 연합위원회에 서울에 대학을 설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sup>44)</sup>

그러므로 감리교 측이 서울의 배재학당 부속시설에서 8명의 학생을 데리고 대학부라는 간판을 걸고 교육을 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sup>45)</sup> 하지만 중등학교에서는 지역별로 연합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고등교육기관의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평양의 남자학교와 대학에서의 장·감연합사업은 1914년도까지도 지속되었다.<sup>46)</sup> 베커가 미국에서 평양으로 돌아온 1911년 9월에 그가 직면한 교육문제의 현실은 그러했다. 베커도 자연스럽게 북감리교를 대표해서 ‘교육사업을 위한 공의회(교육연맹평의회)’ 이사회의 의결기관에 참여했다.

한편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 북감리교 해외선교부 총무, 그리고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계속위원회의 ‘극동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가우처(John F. Goucher) 등이 뉴욕에 모여서 조선 내 대학설립문제

42) “The Union Question,” *KMF*, Vol. 8. No. 8. August 1912, 228-232.

43) H. G. Underwood to Arthur J. Brown(1913년 12월 5일), 『언더우드 자료집 IV』, 103-105. 언더우드는 52,000달러가 미국에 있는 동안(1908-1909)에 한국선교 기금으로 확보한 금액이라고 했다.

44) W. A. Noble, D. A. Bunker, H. G. Underwood, R. A. Hardie, O. R. Avison, E. W. Koons to the Joint Committee in New York(1913년 12월 8일), 『언더우드 자료집 IV』, 106-115.

45) “Educational Progress in Seoul,” *KMF*, Vol. 8. No. 9. September 1912, 280. 물론 배재에서 대학과정에 해당하는 과목들이 교수된 것은 1900년 이전부터이다.

46) B. W. Billings, “A Few Notes Concerning Pyeng Yang Methodists,” *KMF*, Vol. 9. No. 3. March 1913, 70-71.

를 1911년 10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 측도 기존의 입장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다.<sup>47)</sup> 그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사업을 위한 공의회’ 이사회는 1912년 6월 12일에 서울 YMCA에서 첫모임을 갖고 여기에서 하나의 연합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sup>48)</sup> 그래서 동년 12월 20일에서 21일에 다시 모인 공의회 이사회는 각 선교부 대표들이 연합대학의 위치를 둘러싸고 중요한 투표를 했다. 이 모임에서 서울과 평양의 위치를 각각 선호한 사람들은 5: 5동수임이 판명되었다. 아래의 표는 이사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표 1】 1912년 말 공의회 '교육사업을 위한 공의회'의 투표결과

대학위치	선교사명	교파(활동지역)
평양	W. M Baird	북장로교(평양)
	J. E. Adams	북장로교(대구)
	S. A. Moffett	북장로교(평양)
	N. C. Whittemore	북장로교(선천)
	W. E. Venable	남장로교(목포)
서울	A. L. Becker	북감리교(평양)
	B. W. Billings	북감리교(서울)
	W. C. Rufus	북감리교(평양)
	J. L. Gerdine	남감리교(서울)
	W. C. Cram	남감리교(철원)

\* 출처: Becker to the Mission Secretaries, 1913년 1월 16일, Film 101, 37-4, pp. 212-213, Methodist Episcopal Church, Board of Missions, *Missionary Correspondence*.

위의 투표결과는 각 교파 선교부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교파별로 연합대학의 위치에 대한 생각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언더우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평양설치안

47) Arthur J. Brown to H. G. Underwood (1911년 8월 7일), 『언더우드 자료집 IV』, 61-62. 가우처는 감리교 해외선교부 측과 함께 두 개의 대학안을 지지해서 언더우드에게 큰 힘이 되었다.

48) Arthur L. Becker Manuscript, 11. 이 원고는 베커가 자신의 회고록 출간을 위해 서신, 개인 메모(journal) 등을 기초로 작성한 것인데 중간중간에 원 문서들이 그대로 게재된 경우도 많다. 현재 맥쿤과 베커의 손녀인 Heather M. Thompson 여사가 보유하고 있다.

을 선호했고 감리교 선교사들은 대체로 서울을 선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사업을 위한 공의회’에서 연합대학의 장소를 결정할 수 없게 되자 공의회는 뉴욕에 있는 각 교파 해외선교부 연합회(Joint Committee)에 최종결정을 맡겼다.<sup>49)</sup> 한편 북장로교 평양선교부를 중심으로 한 다수와 장로교선교사들은 해외선교부 측이 현재 평양에 설치된 연합기독교대학의 지속적 운영을 추진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베커가 송실에서 활동하던 1914년 2월 14일 뉴욕의 각 교파 해외선교부 합동위원회는 서울권고안을 비준했다. 이것은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측이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결정은 북장로교 조선선교부에도 통보되었다.<sup>50)</sup> 이는 이후 미북장로교 조선선교부와 뉴욕의 북장로교 해외선교부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선교부 합동위원회 측의 서울설치안에 힘을 실어준 것은 이후 진행된 감리교 측의 입장이었다. 북감리교 측은 평양에서 대학교육사업으로부터 철수해서 서울로 협력사업을 옮겼다. 이에 그 일을 위한 인사로 베커가 1914년 3월 말에 서울로 옮겨오게 되어서 4월 1일자로 배재학교에서 대학과정 교수활동에 참여했다.

북감리교 조선선교부 측은 일찍부터 조선총독부의 교육체계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sup>51)</sup> 북감리교 측에서 배재학교의 학기를 일본교육체제와 맞추기 위해 1910-11년 미국식 학기(5월에 종료)를 앞당겨서 1911년 3월에 종료시키고 동년 4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도록 한 것은 그 한 예이다.<sup>52)</sup> 북감리교 선교부의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고등교육기관만 아니라 중등교육기관인 송실에서의 협력관계도 종료되었다. 또한 서울에도 별도의 외국인학교가 1914년 9월 초에 시작되었다.<sup>53)</sup> 그 리하여 감리교 측은 1915년부터 송실학교로부터 광성학당을 본격적으로

49) B. W. Billings, “The Educational Senate,” *KMF*, Vol. 9. No. 3. March 1913, 56.

50) Harry A. Rhodes,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Vol. I, 479.

51) 일본과 조선을 관리하는 감독이 한명이었다는 사실과 서북지방보다는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감리교 조선선교부의 특징이 권력의 존재에 좀더 민감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2) “Korea, 1911,” *Methodist Annual Report*, 188.

53) McCune and Thompson, *Michigan to Korea*, 416.

분리·개편해서 자체적인 중등학교를 만들었다.<sup>54)</sup> 그리고 “시설과 교과 과정을 정부의 기준에 맞추고 종교적 표현과 훈련을 위해 거주하는 학생들(scholars)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면서 우리의 중등 혹은 중간급(intermediate) 학교들의 활력(strength)을 유지한다”고 감리교 조선선교부와 해외선교부는 결정했다.<sup>55)</sup> 이 결과 배재학당은 1916년에, 평양의 광성학당은 1918년에 배재고등보통학교와 광성고등보통학교로 각각 인가받게 되었다. 이는 일제의 중학교와 같은 등급의 학교가 되어서 상급학교로 진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는 조선총독부가 ‘사립학교규칙’(1915)을 통해 요구하는 교육시설, 교수진, 자본규모 등의 기본요건을 충족시켜야 했고 교육과정상 종교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 포함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sup>56)</sup>

#### 4. 감리교 측의 논리와 베커의 서울에서의 활동

왜 감리교 측은 평양이 아닌 서울에 새로운 대학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았을까? 베커의 논리를 통해 그것을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베커가 1905년, 평양에서 연합대학이 출발할 때부터 관여해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1910년대 초 그와 감리교교육위원회가 제기한 서울소재 “연합대학”안은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10년간량 거주한 평양사회를 떠나 거주지를 서울로 옮겨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평양에 있는 대학이 장로교 중심으로 너무 교파중심적이므로 서울에 새로이 교파가 연합하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양에서 장로교 선교사들이 교육에 대해 가진 생각에 비판적이었

54) 1916년부터 북감리교 선교부 평양지부가 광성학교(Pyongyang Boy's High School)를 독자적으로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감리교 여 선교부(W. F. M. S.)가 운영한 장감연합 여자 중등교육기관은 그대로 운영되었다. “Korea, 1916,” *Methodist Annual Report*, 287.

55) “Korea, 1915,” *Methodist Annual Report*, 44.

56) ‘사립학교규칙’에 대해서는 오천석, 『한국신교육사』(서울: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261-274 참조.

다.57) 당시 중국에서의 다른 선교사들의 선교경험이 이 주장의 주요 근거로 이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상하이의 ‘기독교대학’이 결국 교과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여러 교과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북경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저는 평양에서 제공된 기독교 고등교육기관의 기회들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비판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선교부, 즉 북장로교의 이해가 우세한 것은** 저로 하여금 평양이 모든 선교부가 연합하기 바라는 기관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확신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한 장소가 고등교육을 위한 연합사업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중국의 경우에서 확인되어 왔습니다.(강조는 필자; 밑줄 강조는 원문 그대로)<sup>58)</sup>

즉 베커는 평양의 북장로교과가 주도하는 교육기관이 진정한 연합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이 중심지라는 것은 “한국(Korea)내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서울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 선진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이기도 했다.<sup>59)</sup>

북장로교과가 주도하는 평양의 교육사업에 대한 불만은 결국 교육을 둘러싼 생각의 차이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지적할 수 있다.<sup>60)</sup> 그

57) Lilia H. Underwood to Arthur J. Brown (1913년 5월 23일), 『언더우드 자료집 IV』, 91-92. 언더우드의 부인은 자신의 남편을 대변하면서 “평양은 아주 심하게 장로회로 편향되어” 있고 “교육에 대해 너무 편협하고 수준 낮은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베커의 입장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58) Becker to the Mission Secretaries, 1913년 1월 16일, Film 101, 37-4, pp. 212-213, Methodist Episcopal Church, Board of Missions, *Missionary Correspondence* (이하는 Methodist Missionary Correspondence로 표기하고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 제책형식으로 출간한 *Missionary Correspondence of the M. E. C. in Korea 1912-1949*의 책수와 쪽수로 표기)

59) *Ibid.*, 213.

60) “대학 문제”의 근본은 “신학적-세계관적 차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 류대영의 지적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류대영, “윌리엄 베어드의 교육사업,” 「한국기독교와 역사」제32호(2010년 3월), 132. 평양지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교육사업에 대한 철학은 윌리엄 베어드(William M. Baird)를 통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교회의 일군을 세우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평양칼리지 즉 숭실대학의 성격에 대한 분석으로 정준영, “1910년대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은 숭실학교 지원자격자를 둘러싸고 드러난 입장 차이였는데 이는 기독교계 학교에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와 관련되었다. 1907년 평양의 선교사 교육평의회가 열렸을 때 베커는 “비기독교 사립초등학교 출신들 중 뛰어난 자질을 가진 얼마간의 학생들과 함께 후일 기독교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뛰어난 재능과 훈련을 가진 소수”를 중등교육기관에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리교 측의 무어(John Z. Moore)나 조선인 감리교 목사는 찬동했지만 북장로교 측의 블레어(William N. Blair) 등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sup>61)</sup> 이 문제를 두고 장로교 측과 감리교 측의 입장 차이는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베커에게 중요한 사실은 그가 장로교, 특히 북장로교 평양선교부가 가진 고등교육기관 운영방침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선교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 그 중에서도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과학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베커가 보기에는 모펏(Samuel A. Moffett)이 주도하는 평양선교부측은 “기독교인들을 돌보고(ministry) 교육하기 위해서 과학수업이 줄거나 약화되어야(watered down)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sup>62)</sup> 교육의 방향과 교과내용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베커로 하여금 평양의 장로교 선교부의 입장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가 서울의 언더우드가 주도하는 새로운 교과연합사업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다.

그가 서울로 올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로 인간관계라는 변수도 있었다. 앞서 언급한대로 그는 한국 입국 직후부터 언더우드의 교육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서울 배재학교의 노블(William A. Noble)등과 교육사업문제로 자주 논의를 해왔다. 아울러 1914년 9월에 설립된 서울외국인학교의 교사로 온 와그너(Ethel Van Wagoner)는 베커 부부의 엘비온 대학교 동창임과 아울러 베커의 친우 칼 루푸스의 이복동생(half-sister)이

---

조선총독부의 식민지교육정책과 미션스쿨,” 『사회와 역사』 제72집(2006), 234-238 참조. 다만 정준영이 서울칼리지의 성격을 “세속주의적 교육”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글과 관련해서 재검토를 요한다.

61) McCune and Thompson, *Michigan to Korea*, 277-278.

62) *Ibid.*, 367-368.

었다.<sup>63)</sup> 와그너는 후일 H. H. 언더우드의 부인이 되었고 외국인학교에서 베커의 두 아이들을 가르쳤다.<sup>64)</sup>

대학설립의 문제는 선교사들만 아니라 조선인들도 관심을 가진 문제였다. 특히 평양지역은 일찍부터 교육열이 높은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조선인들은 연합대학이 서울에 만들어지면 평양의 숭실대학의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에 반해 서울지역의 배재학교를 중심으로 조선인들은 서울에 학교를 설립하는 안을 적극 지지했다.<sup>65)</sup>

감리교 측은 당시 서울에 2개의 남녀 중등학교(배재, 이화), 감리교 신학교, 그리고 연합세브란스 의과대학과 간호학교가 세워져있으므로 신설되는 대학이 이들 기관과 밀접히 협력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주목할 점은 감리교 측은 서울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만 아니라 초등교육에서도 4개의 모범학교를 교파연합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sup>66)</sup> 베커는 평양에서부터 초등학교 교사들을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서울에서도 1913년 여름부터 단기사범학교사업을 운영했다.<sup>67)</sup> 이들 초등교육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이미 존재하고 있는 중등교육기관, 그리고 새로 신설될 대학교와의 일원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려 한 대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베커의 보고서에 드러난 감리교의 1914년도 교육정책의 목표에서 볼 수 있다. 다음은 그것의 요약이다.

- (1) 좋은 기독교신입생들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에 대학설립을 돕는 것.
- (2) 40명의 학생들을 위해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
- (3) 교회소속의 초등학교를 발전시키는 것.
- (4) 존 무어가 책임지게 될 평양의 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는 것.
- (5) 배재학교를 발전시키는 것.<sup>68)</sup>

63) Ibid., 416.

64) 에블린 맥쿤(Evelyn B. McCune: 1907-현존)은 베커의 장녀로 에델에게서 배웠다. Heather M. Thompson and Darlene M. Blackwood, *A Daughter's Journey: Evelyn Becker McCune* (U.S. [City unknown]: Lulu, 2006), 26-27.

65) *KMF*, Vol. 10, No. 10. October 1914의 대학문제 관련 여러 기사를 참조.

66) 언더우드도 1912년부터 줄곧 서울의 초등교육에서의 교파연합사업을 지원했다. Lillias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83)(originally published in 1918), 316.

67) McCune and Thompson, *Michigan to Korea*, 382-383.

68) Arthur L. Becker Manuscript, 124-125.

이상에서 보듯이 초등학교, 서울과 평양의 중등교육기관, 그리고 대학설립 문제 등이 하나의 교육정책 하에서 구상된 것임을 알 수 있다.<sup>69)</sup> 흥미로운 것은 새로 신설되는 연합대학(college)을 장차 종합대학(university)으로 발전시킬 안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70)</sup> 결국 1912년 무렵부터 감리교 측은 배재학당에, 장로교 측은 경신학당에 각기 대학과정을 두다가 1915년부터 약 2년간 YMCA건물을 임시 교사(校舍)로 사용했다.<sup>71)</sup>

감리교 측의 움직임은 두 개가 아닌 하나의 장감연합대학 설립을 의미했다. 이에 반해 언더우드도 평양의 연합대학과는 별도로 서울에도 고등교육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이것은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 아더 브라운(Arthur J. Brown)이 가진 조선 내 한 개의 대학안과도 차이가 있었다.<sup>72)</sup> 아더 브라운은 조선과 같이 작고 가난한 나라에는 하나의 대학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일본 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총독부 당국이 대학과정을 허락해준 것과 실제 연합대학의 설립을 인가하는 것은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언더우드와 베커 등은 대학교 설립을 인가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이것은 총독부 학무국의 세키야 테이자부로오[關屋貞三郎] 학무국장과 여러 차례의 교섭으로 나타났다. 해리스(Merriman. C. Harris) 감독의 주선으로 베커는 신흥우와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문부성 고위관료들을 만나기도 했다. 아울러 연희동 부지를 학교부지로 확보하는 절차를 밟았다.<sup>73)</sup> 서울의 연합

69) 1차 대전이 1914년 발발하면서 초등학교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기에 결국 조선인들에게 그 책임이 대부분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인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서 북감리교 조선선교부는 상급학교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70) 그는 1914년 4월 1일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평양에서 서울로 옮겼는데 베어드와 헤어지는 자리에서 자신은 “기독교연합대학”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이 학교가 “남과 북, 전 한국을 위한 종합대학(university)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rthur L. Becker Manuscript, 85.

71) McCune and Thompson, *Michigan to Korea*, 399-400.

72) H. G. Underwood to Arthur J. Brown(1910년 7월 18일), 『언더우드 자료집 IV』, 36-40.

73) McCune and Thompson, *Michigan to Korea*, 410-411, 419-423.

대학설립안을 둘러싼 논란은 1915년에 연희대학교가 성립되면서 일단락 되었다. 그리고 총독부로부터 1917년 4월 초에 정식으로 연희전문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는 결국 언더우드의 건강을 해쳐서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복장로교 조선선교부는 1915년 해외선교부에 서신을 보내 자신들은 서울에 신설되는 연합대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sup>74)</sup> 이는 조선선교부내 다수파가 주도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연합재단 설립에 적신호가 켜졌다. 아울러 일제 당국은 동년 「개정사립학교규칙」(1915) 포고를 통해 정규시간에 종교교육을 금지하는 안과 종교시설에 대한 통제를 확립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총독부 학무국과의 교섭은 다시 재개될 수밖에 없었다.<sup>75)</sup> 결국 우여곡절 끝에 언더우드가 1916년 10월에 미국에서 사망한 후인 1917년 4월 7일자로 기독교연합재단법인설립이 허가되면서 동시에 연희전문학교 설치가 인가되었다.<sup>76)</sup>

어렵게 설립된 연희전문학교와 베커에 대한 조선내의 인식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이 학교는 본래 平壤 崇實大學校에서 분리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합니다. 즉 北監理派와 北長老派의 합동으로 平壤 崇實을 경영하여 오든 바 문제되기를 朝鮮에 완전한 대학을 두긴 두되 平壤은 朝鮮에 중앙이 아니요 또 지방이라 하여 京城으로 이전하자는 의논이 학교관계자간에 起하여 수차 문제가 되다가 결국 선교사회에 該移轉問題를 提하였든 바 선교회에서도 可하다는 의논이 有하였스나 自由處決을 못짓고 사실 顛末을 들어 米國 本教會에 訴하였다 합니다. 이에 米國 본교회에서는 京城 이전을 찬성하여 每事善否를 朝鮮 在留 某某 유력자에게 전하였다 합니다. 이에 당시 崇大 校監으로서 京城 이전을 主唱하든 白雅惠(백기)씨는 단연히 이전을 決하고 자기 同志 幾人과 또는 학생 70여 명과 단속하여 崇大에서 분리하여 京城으로 이전하였다 합니다. (此間 兩派 분쟁은 略) 이리하여 초에는 교사가 無하매 京城中央基督教青年會館 하층에서 개학이 되고 다음 培材學校 또는 協成學校로 轉去轉來를 하다가 大正 5년경에 故 元杜宇牧師의 盡力과 白雅惠씨의 苦心으로 現 校舍地로 확정이 되었다 합니다. 그리하여 北監理長老派가 전력을 하고 南監理 加奈陀教會도 合力을

74) Lillias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320.

75) McCune and Thompson, *Michigan to Korea*, 433-434.

76) Lillias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329-330.

하야 지금은 4教會의 합동경영인데 재단법인 하에서 北監, 北長 兩教會에서 연 2만원, 南監, 加奈陀教會에서 年 만원 가량을 제공하며 기타- 寄附 金名 下에서 학교의 請求에 응하는 금액이 多大하다 합니다. 校地의 총평수는 25만여 평이라 하며 至于今 총경비가 60여 만원이라 합니다.(강조: 필자)<sup>77)</sup>

위 기사는 비교적 연희전문과 베커의 교육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학내에서의 베커의 위상과 감리교 측의 연합대학 설립안에 대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초기 연희전문학교는 교육내용이 부실해서 학생들이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도 하는 등 재정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sup>78)</sup>

한편 연희전문학교는 3·1운동 이후인 1923년에 재단법인으로 승인되면서<sup>79)</sup> 학교가 안정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1924년 조선총독부가 경성제국대학을 개교시키자 연희전문 측은 H. H. 언더우드와 O. R. 에비슨의 주도로 미국에서 6백만 원을 모금해서 연희전문학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그리고 협성신학교를 통합, 종합대학교를 설립하는 활동을 진행했다.<sup>80)</sup> 비록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연희전문측이 언더우드가 가졌던 종합대학 구상안을 실현하려고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는 당시 서울의 경성제국대학교의 설립에 연희전문 측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들도 당시 1919년 3·1운동과 1926년 순종의 인산(因山) 때 일경에 의해 체포되기도 하는 등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베커는 1919년부터 2년 동안 미국에 안식년으로 있는 동안 미시간 대학교에서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21년 가을에 연희전문학교에 복귀했다. 그러나 그는 네 명의 자녀를 이 시기 두고 있었고 감리교 측의 재정지원의 악화 때문에 경제적 압박을 계속 받았다. 심지어

77) “內外로 觀한 彼の 二大勢力-恩平에서 東拓農場을 보고,” 「개벽」 제30호 (1922년 12월 1일), 72-73.

78) “私立延禧專門學校 全校生 70餘名,” 「동아일보」 1920년 6월 5일.

79) “私立延禧專門學校 基督教聯合財團法,” 『조선총독부관보』 1923년 4월 2일. 아마도 재단법인의 재승인이었던 것 같다.

80) “六百萬圓으로 綜合大學計劃, 미국에서 모집하는 자금도 예당자금의 반액은 모집돼, 延禧 世醫協神을 合同,” 「동아일보」 1925년 12월 2일.

그는 미국 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 시기 그는 재정요청을 하는 글을 해외선교부에 자주 보냈다.<sup>81)</sup> 그는 결국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선교사의 일을 사임하고 1926년 연희전문을 떠나 미국으로 향했다. 그는 생활을 위해 미국 조지아공대에서 2년 동안 가르쳤다.<sup>82)</sup> 그의 첫째 딸 에블린(Evelyn, 1907-생존)과 맥스(Maxwell, 1909-?)가 대학과 고등학교 교학년이었던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명확하게 조선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sup>83)</sup> 그 후 연희전문 측은 그가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요청했고 독지가의 도움으로 그의 두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베커 부부는 다른 두 명의 자녀와 함께 1928년 한국에 돌아오게 되어 연희전문학교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다.

이후 베커는 1928년부터 1940년 미국으로 돌아가기까지 연희전문의 임시교장과 배재고등보통학교에서 교장(1923-24)을 각각 역임하면서 조선교육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 윤치호, 신홍우 등과 함께 조선기독교청년연합회(YMCA)의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1940년 미일간의 갈등상황으로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귀환했을 당시 자신의 임지를 인도로 바꾸어 기독교대학인 럭나우(Lucknow)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쳤고 1944년 11월 1일자로, 만 65세로 선교사에서 은퇴했다.<sup>84)</sup> 그 후 미국으로 돌아가서 전략첩보처(Office of Strategic Service)에 조선문제를 위해 자문을 하기도 했다. 해방 후 그는 1946년 8월 한국에 미군정청의 고문으로 돌아와서 부산대학교 경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건강과 부산에서의 국립대학교 파동을 겪으면서 이듬해 책임자 자리를 사임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sup>85)</sup>

베커가 관련을 맺었던 한국인 엘리트는 주로 해방 후 과학기술계의 중진이 된 인물들이다. 대표적으로 1951년 서울대학교 총장과 1956년

81) McCune and Thompson, *Michigan to Korea*, 465-467.

82) *Ibid.*, 469.

83) “白博士送別宴,” 『동아일보』 1926년 6월 2일 자.

84) Foreign Missions to Becker, 1944년 10월 24일, *Methodist Missionary Correspondence*, 6076.

85) 부산대학교는 1953년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립되었으므로 그해 9월에 취임한 윤인구를 초대총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학교 자체는 1946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므로 베커를 초대 총장으로 부르기도 한다. 부산대학교 홈페이지([http://www.pusan.ac.kr/KOR\\_PNUS/html/01\\_intro/intro\\_03\\_01\\_07.asp](http://www.pusan.ac.kr/KOR_PNUS/html/01_intro/intro_03_01_07.asp)).

문교부장관을 역임한 최규남, 초대 한국천문기상대의 책임자로 있었던 이원철, 그리고 연희전문학교 수학을물리학과와 의과장을 역임하고 해방 후 연세대학교의 공대학장을 역임한 이춘호·장기원 등을 들 수 있다.<sup>86)</sup> 식민지시기 조선인들을 위해 해외로 열린 창구가 되어준 베커는 그의 친구 칼 루푸스와 함께 이들 조선인 과학자들이 미국 중서부의 학교들, 특히 미시간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베커를 중심으로 북감리교 조선선교부 측의 식민지시기 연합기독교대학문제를 살펴보았다. 베커는 성경과 과학을 동시에 신봉한 “복음주의” 선교사로서 한국에 과학교육을 담당한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었다. 그의 개인기록에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곳곳에 적혀있다. 그는 북감리교 측의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식민지화한 조선에서 나름의 체계적인 교육기관을 설립하려고 동분서주했다. 베커는 평양과 서울의 선교사회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유일한 선교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양에서 10년 이상, 서울에서 안식년을 제외하고 2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의 딸 에블린이 후일 평양에서 자란 맥쿤(George M. McCune, 1908-1948)과 결혼했다. 맥쿤은 숭실전문학교 교장으로 있었던 맥쿤(George S. McCune, 윤산은)의 아들로 국무부 한국과장을 역임했다.<sup>87)</sup> 아울러 그의 아들 맥스가 해방 후 1946년 2월에 미 국무부가 남한 미군정에 파견한 11명의 인사 중 한 사람으로 왔다는 사실<sup>88)</sup> 등은 해방 후 선교사들과 그 후손들의 한국사회와

86) 노춘택, 임영필, 김인식 등도 평양에서부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로 베커를 도왔다. 베커는 이들을 “삼총사(three musketeers)”로 불렀다. McCune and Thompson, *Michigan to Korea*, 396·453·467.

87) 조지 맥쿤 부자에 대해서는 안중철, “윤산은의 교육선교 활동과 신사참배 문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3호(2005); 동 저자, “미국 제도권 한국학의 탄생과 미국의 대한인식,” 이태진 교수 정년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편, 『세계 속의 한국사』(서울: 태학사, 2009) 참조.

88) “번스 등 미국인 11명, 군정청 특별정치고문으로 내한,” 『중앙신문』 1946

의 관련성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북감리교 측의 교육사업에 대한 논리는 그동안 북장로교 내부의 논란에 묻혀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베커를 중심으로 한 감리교 교육위원회는 언더우드와 연합해서 서울에 연합기독교대학을 새롭게 수립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대학의 아래에 평양의 광성학당과 서울의 배재학당이라는 중등교육기관, 그리고 네 개의 모범 초등학교를 설립함으로써 나름대로 교육단계의 연계, 일원화를 꾀했다. 그러나 대학교 설립과 중등학교의 고등보통학교화 등을 통해 북감리교 측의 교육활동은 조선인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해주었지만 동시에 총독부의 교육체계안으로 편입되어 갔다. 선교사들의 조치는 교육문제를 둘러싸고 식민지 당국과 대립과 타협의 제 양상을 동시에 보여준다.

기독교가 세속학문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기독교목회자가 되기 위한 예비학교의 성격이 강했던 송실과 “기독교와 세속학문”이라는 관점에서 기독교는 다양한 학문과 관련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녔던 연희전문학교의 당시 관계는 현재의 한국교육에도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준다. 오늘날 기독교대학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 앞에서 과연 언더우드나 베커의 생각이 좁게는 연세대학교에, 넓게는 한국의 “기독교대학”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 참고문헌

- 『조선총독부관보』, 『동아일보』, 『중앙신문』, *Korea Mission Field*  
Methodist Episcopal Church, Board of Missions, *Missionary Correspondence*,  
1912-1949.
- Arthur L. Becker Manuscript (손녀 Heather M. Thompson여사 소장).
-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V』(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9).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Korea Mission 1884-1943*(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 류대영, 『초기 미국선교사 연구 1884-1910-선교사들의 중산층적 성격을 중심



- 으로』(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 , “윌리엄 베어드의 교육사업,” 『한국기독교와 역사』제32호(2010).
- 박용규, “칼리시문제와 서울·평양 미션회의 갈등,” 『역사신학논총』제5집(2003).
- 서정민, “언더우드: 한국 기독교 고등교육의 꿈,”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편찬위원회, 『(창립 120주년 기념)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 송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송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송실편』(서울: 송실대학교 출판부, 1997).
- 육성득, “초기 한국 북감리교의 선교 신학과 정책-올링거의 복음주의적 기독교 문명론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제11호(1999년 9월).
- 이용민, “미국 북장로회 서울 선교지부와 평양 선교지부의 관계,” 『한국기독교와 역사』제32호(2010년 3월).
- 정재철, 『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서울: 일지사, 1985).
- 최재건, “Underwood 대학설립의 차별성-延禧 창립을 중심으로,” 『역사신학논총』제12집(2006).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서울: 기독교문사, 1989).
- 李省展, 『アメリカ人宣教師と朝鮮の近代: ミツシヨンスクールの生成と植民地下の葛藤』(東京: 社會評論社, 2006).
- Evelyn B. McCune and Heather M. Thompson, *Michigan to Korea: Arthur L. Becker 1899-1926*(U. S. [City Unknown]: Lulu, 2009).
- Harry A. Rhodes,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Vol. I. 1884-1934*(Presbyterian Church, U. S. A., 1934).
- Heather M. Thompson and Darlene M. Blackwood, *A Daughter's Journey: Evelyn Becker McCune*(U.S. [City unknown]: Lulu, 2006).
- Horace H. Underwood, *Modern Education in Korea*(New York: International Press, 1926)
- Lillias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83)(originally published in 1918).
- [Richard H. Baird], “William M. Baird: A Profile”(Oakland, 1968)(미출간).

## 한글초록

아더 베커(Arthur L. Becker)는 1903년 한국에 와서 1940년에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오랫동안 북감리교 선교사로 일했다. 그는 미국 중서부의 고등교육기관에서 물리와 화학 등 자연과학을 공부한 인물로 그의 선교사역의 대부분은 교육사업과 관계가 깊었다. 그의 활동은 숭실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배재고등보통학교 등에서 자연과학을 가르치는 데 집중되었다. 그는 자연과학이 성경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믿었으므로 과학을 잘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본연의 사명이자 선교라고 생각했다. 그는 비기독교인들도 포함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사역을 염두에 두었다.

베커가 가진 이러한 생각은 평양에서 연합교과 사역으로 운영된 숭실전문학교에 대한 북장로교 선교부 측과의 차이로 나타났다. 베커를 중심으로 한 다른 북감리교 선교사들은 교육에 몸담은 인물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사무엘 모팻이나 윌리엄 베어드 등이 가진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인물양성이라는 교육철학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은 서울의 북장로교 선교사인 H. G. 언더우드와 함께 서울에 연합대학을 세우는 안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간 연합대학 설립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북장로교 선교부 내의 문제로 접근된 경향이 있는데 북감리교는 언더우드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었던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베커와 같은 교육선교사들의 입장은 식민지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수용되었기에 그의 생각과 활동은 이 시대 한국의 교육사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실제 해방 후 그의 제자들이 한국 과학계에서 중진으로 활동했다. 게다가 그의 가족들이 해방 후 한국문제에 개입하게 되었다.

주제어: 아더 베커, 숭실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북장로교 선교부, 배재고등보통학교,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교육, 북감리교 선교부

Abstract

## The Educational Ministry of Arthur L. Becker and the Founding of a Christian College

An Jong-Chol

Arthur L. Becker came to Korea as a North Methodist missionary up to 1940, the year that he returned to the USA. He studied natural science such as physics and chemistry in the small college in Mid-west USA. Therefore, his activities focused on science education in Korean middle schools and colleges such as Pajjai school, Union Christian College, and Chosen Christian College etc. He believed that natural science was compatible so that science education was his own calling and missionary work. Therefore, he even supported non-christian's education in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Becker had different ideas from those of Northern Presbyterian Mission, especially Pyŏng Yang' station since Samuel A. Moffett and William M. Baird believed that mission schools provide some environment where christian workers should be raised. Many Methodist missionaries who were mostly educational ones supported Becker's ideas. This position led to the situation that Becker and other methodist missionaries supported the idea that a college should be established in Seoul, the plan that Horace G. Underwood, Northern Presbyterian missionary in Seoul, eagerly had endorsed. It was the case that Northern Methodist decision helped the establishment of Chosen Christian College (Yŏnhŭi College) a lot. Since Becker's idea was amenable to many Koreans, his thoughts and activities shows one important dimension in educational thoughts. In reality, his disciples became leading figures in Korean science circles. Moreover, his family members were involved in post-war Korean situation.

Key-words: Arthur L. Becker, Union Christian College(Soongsil College), Chosen Christian College(Yŏnhŭi College), Northern Presbyterian Mission, Pajjai School, Horace G. Underwood, Mission Education, Northern Methodist Mission(Methodist Episcopal Church)